

“한빛원전, 주민 동의 후 재가동해야”

이개호, 감독기관 원안위 책임있는 대책마련 촉구

“공사기간 단축 위한 무리한 설계변경이 공극 원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영광 한빛원전 3·4호기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구멍)은 발주사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부실공사 때문이라며 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문제가 된 공극은 공사발주사인 한수원이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설계변경을 추진하는 등 부실공사를 자초한 데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 의원은 원안위 국감을 통해 국내 원전 8기에서 발견된 295개 공극 중 94.2%인 278개가 한빛원전에서 발견됐고, 이 중 3·4호기

에서 발견된 공극이 245개에 이르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한빛원전 부실시공 원인에 대해 “원전 건설 당시 원자료를 보호하는 내부철관(CLP) 뒷면 지지 보강재를 제거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현장설계변경요청을 통해 보강재를 그대로 두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서 보강재 하단에 벌집 모양의 공극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부실 공사가 초래된 것은 발주사인 한수원(당시 한전)의 현장설계변경,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부실시공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3·4호기 공사기간은 당초 1988년 10월부터 1996년 3월까지였으나 설계변경이 이뤄지면서 실제 건설기간은 1989년 6월부터

1996년 1월까지로 무려 10개월이나 공기가 늘어났다.

이 의원은 “문제는 이런 부실시공이 2017년 6월 발견됐음에도 감독기관인 원안위가 한수원과 현대건설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고 비난했다.

원안위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차원의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나서야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공극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를 நட장 구성하고 원안규명과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한빛원전 사건에 대한 인근 지역민들과 국민들의 불안감을 커져만 가고 원전 폐쇄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발주사인 한수원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독기관인 원안위의 무책임과 안이한 인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실시공의 원인과 결과를 지역민 앞에 공개하고 책임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지역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빛원전 3·4호기 공극과 관련해 원안위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들의 동의를 전제로 한빛 원전 3·4호기 재가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동구, 도로명주소 업무 우수기관 선정

광주 동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도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시설확충, 홍보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동구는 그동안 상세주소 부여를 비롯해 행정동별 상세안내도 제작, 축제 및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집중밀착형 홍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거리가게 사물주소 부여 등을 추진했다.

서구, 재직자 위한 新중년 인생찾기 수강생 모집

광주 서구가 재직자의 경력확장을 위한 ‘신(新)중년 인생찾기’ 프로그램을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진행한다.

이번 ‘신(新)중년 인생찾기’ 프로그램은 △나의 생애 조망하기, △직업역량 도출하기, △경력대안 개발하기, △평생경력계획 수립하기 등 재직근로자들의 경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은 11월 19일~11월 28일(매주 화, 목) 19시~22시에 진행되며, 40대~60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교육장소는 두드림 서구평생학습관(화정2동 주민센터 지하)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남구, 3년 내 취득 농지 이용실태 조사

광주 남구는 최근 3년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통해 취득한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22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11월 30일까지 지난 2016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3년 이내 신규 취득한 모든 농지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농지 저당기관이 취득해 소유한 농지 및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농지, 취득 후 8년 이상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된 농지, 취득 후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받은 농지 가운데 3년 이상 계속해 농업 경영을 한 것으로 판명된 농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북구,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서 우수기관 선정

광주 북구가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북구는 “23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9년 제8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시상식’에서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수상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은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을 발굴·포상해 교육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관련 기관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마련됐으며 올해는 31개 기관·단체와 9명의 개인이 선정됐다.

북구는 구민 지향적 교육편의 제공이라는 목표 아래 관련 기관과 협업해 지역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기부 문화를 활성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산구 야호센터, 개관 3주년 기념 마을축제

26일 광주 광산구가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 개관 3주년 기념 마을축제 ‘야호는 마을의 외침이다’를 개최한다.

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주민 동아리, 영천주공 9·10단지 아파트 부녀회 등이 10개 단체와 함께 꾸미는 이번 축제는, 2016년 센터 개관 이후 청소년과 주민이 함께 꿈꾸고 성장한 과정을 공유하는 장.

오후 3시부터 시작하는 행사는 청소년 방과 후 오케스트라 공연, 청소년 활동 영상 공유, 청소년 댄스 퍼포먼스, 마을 주민 동아리 공연 등으로 구성돼있다.

임형택 기자

비대한 가로수 보행로 잠식...“아파트 담장 허물고 나무 심자”

광주시, 금호동서 현장 경청의 날

광주시에 가로수 성장으로 보행이 어려워진 아파트단지 주변 통행로 확보를 위해 담장을 허무는 방안을 제시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남 서구 금호동 도시공사1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제11회 현장 경청의 날’을 개최하고 보행로 등을 점검한 뒤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현장 경청의 날에는 이용섭 시장,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과 권익위원, 서대석 서구청장, 황현택 광주시의원, 강기석·윤정민 서구의원, 아파트 주민 등 50여 명이 함께 했다.

금호동 도시공사1단지 아파트가 있는 금화로 115번길은 1998년 택지 조성 시 식재된 메타세쿼이아가 20년이 지나면서 나무둘레가 굵어지고 뿌리가 지상으로 돌출해 보행로를 잠식하고 있다.

일부 구간은 보행 폭이 1m 이 내로 좁혀져 산책 나온 가족, 자전거나 유모차 이용자들이 보행



이용섭 광주시장이 21일 서구 금호동 도시공사1단지 아파트에서 열린 제11회 현장 경청의 날 행사에 참석해 메타세쿼이아로 좁아진 보행로와 관련한 민원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로 대신 차도를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광주시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아파트 주민들과 수차례 현장간담회를 열고, 해법 마련을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해 현장 경청의 날을 마련하게 됐다.

주민들은 “가로수 비대화로 보행로가 좁아 이동이 불편하다”며

“차도 역시 평일에도 양쪽 차선에 주차된 차량이 빼곡히 들어차 보행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금화로 주변 가로수 가지치기 △아파트 내 아스팔트 포장 등을 요청했다.

서은홍 기자

광주보건환경연구원

대기오염이동측정차 운영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이동측정차’를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원은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 고정식 대기오염측정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나 학교, 어린이집 등 시민 생활지역·산업단지 주변 대기오염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대기오염이동측정차는 차량을 측정지점으로 이동·배치해 1주일 간 24시간 연속 대기질을 측정하며, 측정된 자료는 연구원에 실시간 전송해 분석한 후 유관기관과 시민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측정항목은 미세먼지(PM-10, PM-2.5)와 오존(O3), 아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등 6개 항목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중금속,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55항목은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시험실에서 정밀분석을 실시한다.

배석진 환경연구부장은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 구축으로 건강에 유해한 대기오염물질을 촘촘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분 한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세무기장·조정 ■법인설립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에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1.77배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연도	고소득층	중소득층	저소득층
5년 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년 전	1.7배	2.1배	2.7배
3년 전	48,103원	26,697원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공적연금 1571-1000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약속해주세요.